

[승례문 화재 관련 긴급 토론회]

승례문, 한국사회에 말을 걸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8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진행

- 사회 _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_ 승례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문화재 복원의 방향

/ 양윤식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승례문 소실과 위험사회 대한민국

/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_ 송도영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민재 (동아시아문화기획 대표)

홍기빈 (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승례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문화재 복원의 방향

양윤식 /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1. 머리말

국보 1호 승례문이 불탔다.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서울시내의 소방서와 소방장비가 모두 동원되다시피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국보 1호 승례문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국보 1호도 불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국보 1호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상식이 깨졌다.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의 상식과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에 기대고 있는지 여실히 느꼈다. 국가가 우리의 상식과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다.

서울의 상징이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한탄과 애도의 한 숨이 터진다. 자존심이 불타고, 역사가 불타고, 국민이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 국민이 가보 1호를 잃은 것처럼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다. 부끄럽다고 한다. 누구는 분신이라 하고 누구는 소신공양이라 한다. 무엇을 위해 분신하고 소신하였단 말인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3년 만에 200억원을 들여 복원하겠다’고 한다. 가림막을 둘러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잔해를 파헤치고, 불탄 자재를 덤프트럭에 실어 쓰레기처리장에 버렸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불태웠는지, 무엇을 되살릴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2. 승례문의 문화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일컬어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s)’이라고 한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근대시기에 들어와 정립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손상 및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자 이를 우려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문화재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이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도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는 있었다. 다만 인위적으로 선택하고, 정책적으로 보존할 대상을 정하는 문화재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이다.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갖가지 철학과 이론이 나타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과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모든 논의는 보편적이지 않을뿐더러 개별적이며 독창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라는 개념에 포섭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라는 개념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¹⁾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 여기에서 역사적 가치란 해당 유산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기록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족사회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그 유산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술적 가치란 회화·공예·조각·건축 등에서 미적 우수성과 형상적 탁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 가치란 당대 민족사회의 역사와 사회문화, 생활환경 등을 복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한다. 경관적 가치는 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자연의 경이성과 생성 과정의 특이성, 자연의 조화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부 언론과 학계 등에서 일제시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해 8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일제시기에 지정된 문화재 503건에 대해 역사왜곡, 가치평가 왜곡, 지정사유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명칭, 등급 등을 재조정하였다. 이때에 14개 영역별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34명으로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명칭변경 130건, 등급조정 26건, 문화재 종별조정 1건, 문화재 지정범위 재조정 2건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심의결과 문화재 명칭 변경 7건, 등급조정 15건 등 총 22건이 재평가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제가 왜곡하거나 격하시킨 문화재 명칭변경의 경우 서울남대문을 서울승례문으로 하는 등 고유명칭 환원이 6건이며, 문화재 가치왜곡의 시정으로 해인사장경판고를 해인사장경판전으로 바꾸었다. 또 등급조정인 경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일본인에 의해 축성된 왜성 8건에 대해 국가지정의 사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시도지정의 기념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통도사대웅전 등 6건에 대해서는 보물로 되어있던 것을 국보로 승격시켰다. 또한 중초사지삼층석탑은 문화재적 가치가 보물로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지방유형문화재로 등급을 하향조정하였다.

한편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와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국보 제1호만큼은 우리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국민의 여론에 대해 문화재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지정번호라는 것은 가치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문화재는 그 분야의 독창성이고 개성있는 가치 때문에 우열을 매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인식과 기록자료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남대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건축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미 지정한 문화유산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좇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보 제1호로 재지정할 경우 추천된 문화재는 훈민정음이 창조성-역사성-학술적 가치성-예술성-상징성의 이유로, 석굴암이 역사성-예술성-학술적 가치성-창조성-기술성의 이유로 추천되었으며, 다음으로 팔만대장경, 다보탑, 첨성대 순으로 추천되었다.²⁾

2) 문화재관리국(1997),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 결과보고서

위의 사실은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그것이 갖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재평가된 문화재 중에는 건축문화재도 4건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기준의 변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는 모든 종별을 막론하고 특히 이 '가치'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성되고, 기록되고, 합의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

	종 목	국보 제1호
	명 칭	서울송례문(서울崇禮門)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시설
	수량/면적	1동
	지 정 일	1962.12.20
	소 재 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시 대	조선시대
	소 유 자	국유
	관 리 자	중구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원래 이름은 송례문이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렸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송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위의 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송례문에 대한 문화재정보이다. 포탈사이트에는 송례문을 ‘1396년(태조 5년) 축조된 서울도성의 정문으로 국보 1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소개하고 있다.

위 글에서 말하고 있는 송례문의 문화재적 정보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송례문은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현실 속에 생활하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의미를 갖는다. 서울이라는 역사도시의 맥락이 오늘의 나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역사적 가치가 내 안에서 되살아난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창한 신진사류의 이상과 현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그 역사도시가 현대의 서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폭발하듯 전개되는 개발의 방향이 인간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있는지 되물을 때 도성의 성내와 성저십리의 경계이자 기준점으로서의 송례문이 가치를 갖는다. 섬으로 남아있는 동대문이나, 이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서대문이나, 등산로의 일부로 여겨지는 북대문은 조선시대 도성을 두르고 통행로를 개설하여 생활의 근거를 든든히 했던 그 생각과 생활에서 멀어져 있다.

목조건축은 재난과 파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하나 술한 전란과 강점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개발의 미명 아래 이익창출의 볼모가 되었다.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이 600년을 갓넘은 송례문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북촌의 한옥이나 400년을 넘지 못하는 고궁에 비하면 송례문은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건축적 성취물로서 오히려 그 존재가 기이할 정도다. 지금도 헐려나가고 있는 동대문운동장이나 근대건축물을 보면 역사적 건축물과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는 행정당국에게 송례문은 오래된 낡은 건축일 뿐일지도 모른다.

남대문 문턱은 박달나무인지, 송례문의 현판은 왜 세로로 매달았는지, 전차는 송례문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남대문시장의 지렛꾼은 누구인지, 송례문수입상가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서울역에서 돌아선 시위행렬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민족의 역사와 사회문화, 생활환경을 복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곳이 송례문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까?

송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참담한 화재를 포함하여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3. 승례문 복원의 방향

복원된 승례문이 ‘조선시대의 석축과 21세기 누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보 1호는 어찌될 것인가?

건물은 유형문화재이고, 건물지는 기념물이다.³⁾ 지정종류로는 유형문화재로서의 국보와 기념물로서의 사적으로 구분된다. 국보도 사적도 모두 지정문화재의 하나이다. 그런데, 왜 문화재청은 화재 다음날 서둘러 승례문의 국보 1호 지위 유지를 천명했을까?

문화재로서 승례문이 가져야 할 국제적 기준은 ‘진정성(Authenticity)’이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진정성은 ‘창조적 과정에 있어서의 내적 통일성, 작품의 물리적 실현, 그리고 시대적 절차상의 영향력 등의 진실을 판정하는 척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진다. 첫째, 특성으로 대표되는 예술적 창조적 자질, 둘째, 물리적 유산의 물질적 실체에 있어서의 시대적 영향, 셋째, 현대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응집력.

문화재청은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과연 진정성에 바탕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국보 지위의 유지와 사적으로의 변경은 향후 화재의 복구와 누각의 복원에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국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래의 형태와 물리적 실체로서의 건축 자재와 기술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승례문 1층이 상당히 남아있고 정밀실측도가 이미 작성되어있다는 것은 복원에 있어서 상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남은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정밀실측도를 바탕으로 금강송을 사용하여 대목장이 시공한다면 완벽하게 옛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경우 2008년 2월 10일 화재라는 역사는 장막 속에서 흔적이 말끔하게 지워지고 기록으로만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를 보면,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남을 것이다.

사적으로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숭례문은 서울 도성 성곽의 일부로 돌아가고 화재의 상처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역사의 아픈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불탄 부재도 그 모습 그대로, 무너져 내린 적심과 강회와 기와도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 잿더미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국보 1호 숭례문을 지키지 못한 우리시대의 자화상이 뚜렷하게 현장으로 남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합의는 무엇인가? 국보인가, 사적인가?

숭례문 복원은, 혹은 복구는 결과로서 주어져서는 안된다. 시민의 합의와 성숙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흰 국화를 바치는 마음도, 서성이며 눈시울을 붉히는 발길도 모두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는 표현일 것이다.

과정으로서 숭례문 복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한다. 참여의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믿음과 상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신뢰와 공감의 희망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숭례문 복원의 방향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다. 숭례문 복원은 '장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우리의 태도가 현실에서도 작용하고 있는지, 숭례문 누각으로부터 비롯된 건물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현대도시 서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있다.

4. 맺음말

숭례문은 국보 1호로서 되살아나야 하는가? 국민의 상처와 자존심은 누각을 재건하고 국보 1호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치유될 것인가? 3년 만에 200억 원을 들여 복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숭례문의 복원을 통해 모두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빠른 공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숭례문의 가림막과 잔해의 폐기처리가 그런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3년 후에 송례문 누각이 장막을 벗고 산뜻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송례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송례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송례문은 국보 1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하고 향유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가다듬고 민족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복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는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되는 것이다. 선조들이 남겨준 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연속되는 과정이고 끊임없이 창조되는 역사이다. 우리의 뭇은 의미있는 역사를 더해가는 것일 뿐이다.

승례문 소실과 위험사회 대한민국

홍성태 /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머리말

2008년 2월 11일 새벽에 승례문은 소실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시민의 방화로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소실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문화적, 역사적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 이 참담한 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들은 <http://blog.naver.com/psyang7/120047923018>, '아, 승례문'에 갈무리된 것을 이용했음.)

일제강점기 승례문 미공개 사진(국립중앙박물관)



- 일제가 승례문 둘레에 석축을 둘러쌓고 일본식 근대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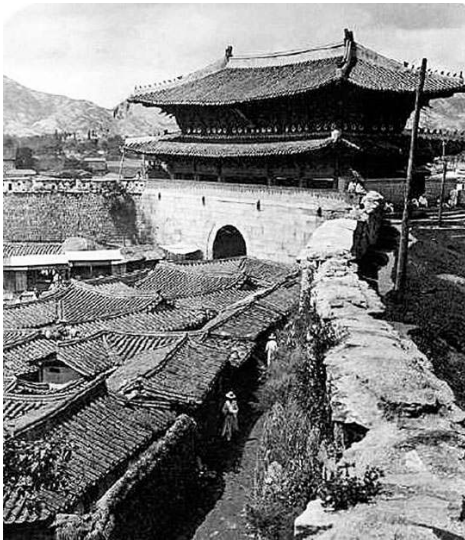
- 승례문 왼쪽에 서양식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봇대를 이용해서 전깃줄을 설치해서 주변의 하늘은 이미 어지럽다.



- 서울역에서 승례문으로 가는 길 옆으로 일본식 근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보도에 전봇대를 세워서 전깃줄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전봇대-전깃줄 방식도 일제의 유산인 것이다.

2. 역사 속의 숭례문

‘숭례문 변천사’(『연합뉴스』 2008년 2월 12일)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숭례문과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1904 1398년 건립된 숭례문은 조선 왕조의 얼굴이었다. 지방 곳곳의 문물이 수도 한양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해야만 했다. 20세기 초에도 숭례문 밖에는 상점과 민가가 밀집했다. 지금은 사라진 성곽이 뚜렷하게 보인다.



1910년 무렵 촬영된 남대문. 이미 양쪽 성벽은 헐려져 도로가 나 있다. 사진 출처는 1910년대 일본측 사진자료집인 日本之朝鮮. 有樂社.(도쿄). 사진 타이틀은 ‘경성 남대문’이며 그 설명은 “원래 양쪽에 성벽이 있고 중앙의 굴로 왕래했던 것으로 동물의 분뇨가 길에 넘쳐나 발을 디딜 곳이

없었으나 지금은 성벽을 허물고 따로 도로를 내서 이와 같이 멋지게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1940 일제는 1907년 숭례문 주변의 성곽을 허물고 도로를 냈다. 이후 조선 왕조의 얼굴이었던 숭례문은 대로에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됐다. 줄을 지어 달리는 자동차, 숭례문에 인접한 서양식 고층건물이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1951 전 국토를 포연이 뒤덮었던 한국전쟁 중에도 승례문은 무사했다. 600년 가까이 견뎀 온 승례문은 전쟁의 비극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당당한 모습만은 잃지 않았다. 당시 포격에 의해 석축과 지붕 등이 훼손된 가운데서도 말이다. - 일제의 관리사무소가 아직 남아 있다.



1963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961~63년 대규모 해체·복원 공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1963년 5월 14일 중수 준공식 때 모습. (서울=연합뉴스) - 일제의 관리사무소가 사라졌다. 이때부터 일제보다도 소홀히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3 지난 1983년 신축중인 고층빌딩들 사이에 싸여있는 국보1호 승례문 모습. (서울=연합뉴스) - 남대문중학교 자리에 '동방빌딩', 상공회의소 등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남산 쪽에서 찍은 것이다.



2006 지난 2006년 승례문광장 개장에 맞춰 대폭 개선한 승례문의 경관 조명시설.(서울=연합뉴스) - 조명은 휘황하게 하면서 소방이나 경비는 개선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문화재를 정치적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나쁜 사례이다.



2008 화재 5시간 전 승례문 - 화재 발생 당일 오후 3시경 승례문 모습. (최영태 기자)



- 불에 타서 지붕이 무너지고 있다.



- 시커먼 숯덩이로 변한 승례문.

3. 승례문의 역설

승례문의 편액은 다른 문의 편액과 달리 세로로 쓰여졌다. 그 까닭은 관악산의 화기를 억누르기 위함이었다. 관악산의 화기며, 세로로 쓴 편액이 그것을 억누른다는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모두 어떤 합리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설명이다. 그러나 건물은 모두 나무나 풀로 만들어진 반면에 소방시설은 보잘 것 없었던 시대에 불을 두려워하고 막고자 하는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승례문은 독특한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문화재였다.

조선시대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한 풍수 장치



1900년대의 광화문과 해태상



“불 막는 방패로
세웠는데 ... 불로 잃
어” [중앙일보], [2·
10 문화 국치],

‘풍수지리로 본 송
례문’,

송례문 연못, 세로
현판, 우회로, 광화문
해태 - 관악산 화기
누르려 조선시대 때
네 겹 방화막.

4. 숭례문 소실과 위험사회⁴⁾

결국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울의 관문이요 한국의 상징인 숭례문이 불에 타버리고 만 것이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불이 났다고 한다. 얼마 뒤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불씨는 기와 아래 깊숙한 곳에서 600년 역사의 숭례문을 지글지글 태우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서 다시금 불길의 치솟았고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숭례문은 무너지고 말았다. 수십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기와 아래로 물길을 보내지 못하고 무력하기만 했다. 한국의 상징은 그렇게 무참하게 불타고 무너져 버렸다.

숭례문은 흔히 남대문이라고 불리지만 실은 남대문은 숭례문의 ‘비칭’에 가깝다.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한다. ‘예를 받든다’는 뜻의 ‘숭례’라는 말은 조선이 유교국가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준다.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가르쳤는데, 유교에서 ‘예’는 사회의 근본이다. 온갖 전란과 풍상을 견딘 숭례문이건만 ‘예’가 무너진 사회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렇듯 타버리고 만 것인가? ‘예’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 사이만이 아니라 현재 세대와 과거 세대,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도 해당된다. 현재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돈 사회’에서는 역사도 미래도 존재하기 어렵다.

숭례문은 서울 도성의 사대문을 대표하는 문이다. 임금이 사는 도성으로서 서울은 본래 18km에 이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세계적인 ‘성곽 도시’였다. 사람들은 네개의 대문과 네개의 소문을 통해 서울을 드나들 수 있었다. 임금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사실 생명의 원천인 햇볕을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남쪽에 위치한 숭례문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문이 되었다. 하나의 건축물로서 숭례문은 서울 성곽에 무지개 모양의 문을 내고 그 위에 나무로 누각을 지은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숭례문은 서울의 상징이 되었다.

숭례문은 세종 때인 1307년에 완공되었으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었다. 숭례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보며 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긴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 숭례문은 징기스칸의 침략 이래 최악의

4) 2008년 2월 11일 프레스안에 올린 필자의 칼럼.

문화적 대재앙이었던 임진왜란에도 소실되지 않았으며, 병자호란, 일제침략, 한국전쟁, '조국 근대화' 등도 이기고 원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승례문은 더욱 감동적인 문화재였다. 승례문은 온갖 전쟁과 환란과 개발의 강풍을 이기고 600년 동안이나 제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600년의 역사가 삼시간에 자욱한 연기가 되어 시커먼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승례문의 소실은 안전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위험사회 한국의 처참한 실상을 다시금 확인해준 역사적 사건이다. 안전문제를 그저 '비용'으로 여기는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위험사회 한국에서는 어이없는 화재사고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삼시간에 목숨을 잃고, 나라의 상징인 소중한 문화재가 한줌 채로 불에 타 없어지고 만다. 우리는 위험사회 한국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발본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성장과 부자만을 외치는 '돈 사회'에서는 자연과 문화는 물론이고 생명마저 존중되기 어렵다. 위험사회 한국은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

위험사회 한국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2월 11일 오전에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승례문 소실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그런데 안상수 의원은 지난 번 이천 화재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노무현 정권 탓'을 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그야말로 안전업무에 대해 얼마나 허술했는지, 신경 쓸 데는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신경 쓴 데에 따른 비극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권말기에 터져 나오는 여러 안전사고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안상수 의원을 보자니, '난 한 놈만 팬다'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데뽀'가 떠오른다. '안데뽀'의 등장인가? 그러나 '무데뽀' 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이해조차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밋고 '노무현 탓'이 유행이라고 해도 이천 화재사고나 승례문 소실사고처럼 처참한 사고에 대해 '노무현 탓'의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말 이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사회 한국의 문제에 대처해야 옳을 것이다.

잠시 과거를 거슬러 자료를 살펴보자. 안상수 의원의 말대로라면, 1983년 9

월 대한항공기 격추, 1991년 3월과 4월 낙동강 폐놀오염, 1993년 10월 서해 웨리호 침몰,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7월 씨프린스호 침몰, 1996년 4월 고성 산불, 1996년 5월 시화호 오염, 1997년 11월 영광 핵발전 2호기 파손 등의 대형사고들은 모두 한나라당의 '전신'들이 저지른 사고가 아닌가? 안상수 의원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한나라당은 이런 역사를 이미 깡그리 잊은 것 같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집권과 함께 또 다시 비슷한 대형사고들이 줄줄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행히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던 모양이다. 예컨대 정몽준 의원은 중앙정부의 잘못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잘못도 지적했다. 이것은 분명 적절한 지적이지만, 여기서 나아가서 한나라당을 돌아봐야 한다. 차도 한복판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송례문에 시민이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당선자다. 2006년 3월 1일에 송례문은 99년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송례문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소중한 문화재인 송례문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 이런 점에서 송례문 소실사고는 청계천의 역사를 사실상 완전히 파괴한 '청계천개발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재의 소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나는 사고였다. 이에 대해 역시 오래 전부터 여러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고, 제정된 것도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발주의가 횡행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법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개발주의에 굴복하거나 심지어 야합하곤 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효종대왕릉에서 LP가스를 이용해 취사를 하도록 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문화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람들조차 문화재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위험사회 한국의 척박한 현실이다.

송례문의 소실은 더욱 무서운 문화 대파괴의 불길한 징조일 수 있다. 정략적 논란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구조와 제도와 주체의 모든 차원에서 미비한 것을 완비하고, 실수와 잘못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문화재를 우습게 여기는 천박한 개발주의, 우리 문화재를 하찮게 여기는 식민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행정의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대통령 취

임선언에서 국토와 문화재의 보호를 천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명박 당선자부터 시행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다.

5. ‘진정한 선진화’ 를 위해

진보나 개혁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선진’ 또는 ‘선진화’라는 말만 들어도 대부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나는 이런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나 개혁은 ‘선진’ 또는 ‘선진화’를 거부하는 것인가? 진보나 개혁은 ‘후진’ 또는 ‘후진화’를 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진보나 개혁은 ‘선진’ 또는 ‘선진화’가 특정한 의미, 예컨대 무조건적 경제성장을 뜻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보수의 전유물처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선진’ 또는 ‘선진화’를 단순히 무조건적 경제성장으로 여긴다거나 보수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진보나 개혁의 주장은 오히려 진보나 개혁의 엘리트주의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수 있다. 내 경험으로는 ‘선진’ 또는 ‘선진화’가 경제성장이나 보수와 밀접히 연관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선진’ 또는 ‘선진화’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나아가 진보나 개혁은 ‘선진’ 또는 ‘선진화’라는 말 자체는 경제성장이나 보수에 국한될 수 없는 좋은 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진’ 또는 ‘선진화’는 사실 ‘좋은 사회’를 뜻하는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품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진보나 개혁은 ‘선진’ 또는 ‘선진화’라는 말을 무조건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뜻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선진’ 또는 ‘선진화’를 둘러싼 논란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 뜻은 ‘좋은 사회’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은 이미 절박한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진정한 선진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선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화’를 성장주의나 개발주의의 강화로 여기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요 잘못이다. ‘선진화’는 사회의 발전을 뜻한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공생이 그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조화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 공간적으로 여기-저기-지구의 연속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사람과 자연의 공생은 사람의 존속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은 자연 속의 한 존재에 불과하다. 자연의 파괴는 사람의 파괴로 이어지고 만다. 우리는 생태문화적 개발과 생태복지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선진화’는 단순히 경제의 성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치의 민주화, 문화의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민주화와 문화의 다양화가 목적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제성장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정치의 민주화와 문화의 다양화라는 목적가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위험사회의 문제는 극히 악화되고 만다. 한국형 위험사회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이중질서 사회이다. 한국형 위험사회는 개발-투기-부패의 악순환 구조를 정립하고 자연과 역사의 파괴를 당연시하는 한국형 천민자본주의의 발현이다.

태안의 불행에는 재벌이 자리잡고 있고, 이천의 불행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승례문의 비극에는 토건국가가 자리잡고 있다. ‘진정한 선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파괴, 인명의 살상, 역사의 소실이라는 고통은 계속 체계적으로 생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엄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홍성태(2005), 『생태문화도시 서울을 찾아서』, 현실문화연구
----- (2006),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현실문화연구
----- (2007 ㄱ),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당대
----- (2007 ㄴ), 『대한민국 위험사회』, 당대